사랑과 공경

지금 우리에게 효도란?

전통사상과 문화를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효孝'를 무척 강조한다. 효 문화는 우리 문화의 미풍양속의 하나로 계승할 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효도는 낯설지 않은 말이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과거 1970년대 유신정권에서 학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 충효忠孝를 무척 강조하였고, 각종 드라마나 영화 또는 대중가요, 소설, 전래동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한자나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가치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효도를 무척 강조한 일은 유교와 관련이 크다. 물론 유교의 가르침이 보편화된 조선 시대 이전에 효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삼국유사나』나 『고려사』에도 효도의 사례가 등장한다. 다만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아 오륜五倫 등을 통해 사회의 질서

를 유지하고자 하여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사실 이 문제는 공자의 가르침과도 관련된다. 춘추시대의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주장된 가치 가운데 하나였다. 가령 『논어』의

> "젊은이는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집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일을 행하고 힘이 남아돌면 문文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효도나 어른 공경 등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는 공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포괄적 도덕 규범인 인仁의 범주에 들어가고, 지배집단의 구성원에게 더욱 요구되는 가치였다. 왕위 쟁탈이나 권력 싸움에서 인륜에서 벗어나는 일이 당시에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또 『맹자』의 첫 장부터 모시던 주군主君을 시해하는 전국시대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송 대 성리학은 그 이념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유교의 이념과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찍이 교화라는 이름으로 『소학』을 중심으로 사회의 전반에 이런 이념을 확고히 다지고, 『소학』을 비롯하여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간행과 보급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오륜, 효도, 충절忠節(충성과 절의 또는 절개) 등이다. 특히 조정에서 이름난 효자와 열녀를 표창하여 정문旌門을 세우

고 세금을 감면해주자, 기이하면서도 지극 정성을 다한 수많은 효자와 열녀가 배출되었다.

효도의 내용은 크게 살아계실 때의 공경과 봉양,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와 삼 년 상, 그리고 제사 등이 그것이다. 벼슬아치라 하더라도 국가의 일보다 효도가 우선이었다. 이렇듯 효도는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였고, 그것이 관혼상제라는 예법과 결탁하여 더욱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선생이 다른 가치와 아울러 효도를 강조하는 일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선생도 그가 속한 역사적·사회적 환경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선생은 『소아수지』나 『격몽요결』 등에서 오륜과 효도에 관련된 가르침을 펼친다. 특히 후자의 「서문」에서는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여 그 당위성을 말하고, 「사친장」에서는 효도해야 할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낳아주고 길러 준 은혜'이다.

형식논리상 은혜를 갚는 일은 미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근거나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많다. 부모가 넉넉하게 잘 키운 사람, 부모의 기본적 양육 외에 재산이나 영향력으로 큰 도움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 고생만 한 자녀 가운데는 되레 '왜 나를 낳았어요?'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자신의 삶이 힘들수록 그런 원망을 한다. 물론 전자에도 불효자가 있고 후자에도 효자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이런 근거로 젊은이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면 대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점은 그 근거가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 효도하라고 설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이념과 제도적으로 실천을 뒷받침해 준 조선시대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과 자유를 더 존중하는 풍토에서는 옛날처럼 되기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에게 '효도'라는 단어는 하나의 금기어가 된 듯하다. 취업과 경제적 조건에서 젊은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점도 그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성인인 된 뒤에도 아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년들도 많다. 어디 청년들 뿐인가? 기성세대도 노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기혼자는 배우자가 있어서 각자 부모의 봉양에 배우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대로 봉양하려면 서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노년기에 막 접어드는 사람들은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풍토이다. 요양원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고독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강요하지 않고, 설사 혼인했더라도 손자를 낳으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그 심리의 저변에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은 밑지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 일차적 원인은 경제적 이유와 양육 조건 때문이지만, 그들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효도는 박물관에 가져다 두어야 할 전근대의 유물일까? 자식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던 수직적 가치일까? 가정교육의 핵심 덕목으로서 선생의 이런 주장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같은 것일까? 선생의 사상에서 이 효도를 계승하거나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특성화시킨다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왜 재해석하여 계승해야 할까?

그렇다면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과거처럼 효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싹트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부모를 한없이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부모의 역량 강화에도 있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에도 있을 것이다.

현대판 부자유친

효도란 자식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윤리일까? 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일종의 수직적 윤리란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오늘날에 불필요한 가치로 여길 법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효도가 불필요할까? 자식이 없다면 논리상 효도를 받는 일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므로 여전히 효도의 대상은 성립한다. 자식이 있다면 그는 효도 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효도하는 주체가 된다. 효도하고 동시에 효도를 받는 것이 전

통사회에서는 상호부조의 복지시스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회질서만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위해서도 효도는 필요한 일이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 노후 보장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정작 본인들도 대비하고 있어서, 대체로 그 일로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관혼상제와 연계된 효도의 관습 또한 점차 퇴락하고, 자식도 과거식의 봉양에서 점차 자유로우므로 적어도 효도의 형식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효도라는 관념이나 관습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불편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색함도 전혀 없다.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변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비록 전통문화를 존중하여 여전히 효도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와 개인이 있긴 해도, 과거식 효도를 아무리 강요해도 정착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효도에 대한 재해석 또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듯하다. 지금 당장 조선 시대의 효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현재 한국인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미국인이나 또 유럽인들처럼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있어서 우리만의 고유한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情이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더구나 부모 자식 사이에 있어서 말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인 신뢰나 헌신이나 존경이나 보살핌이나 인정認定 등은 어찌 보면 사랑의 결과이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일이 형식적인 행위에 머물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오늘날 효도처럼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일이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선생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격몽요결』의 「서문」에서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해야 한다."라는 '위부당자爲父當慈, 위자당효爲子當孝'의 논리가 그것이다. 아랫사람인 자식에게만 강요하는 윤리가 결코 아니다.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쌍무적 윤리이다. 물론 위부당자가 전제조건으로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선생은 이것을 당위적 명제로 진술하였지만, 우리는 이 논리를 현대 심리학·교육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도 생기는 법, 곧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자라서 사랑의 표현을 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미움받고 학대받고 치우친 가치관 아래에 성장한 사람은 심성이 바르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옛 부모들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 그 집안을 살피는 이유가 단지 재물이나 권세만을 보기보다, 상대의 가정환경 곧 신랑 신부 부모의 성정性情과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의 인성과 성격을 간접적으로 검증했다. 조상들이 이런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몰랐어도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였다. 오늘날 연애 결혼을 한 커플 가운데도 살다가 이혼하는 가장 큰 사유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인데, 연애 결혼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때 서로 좋아 맹목적으로 이끌렸기 때문이리라. 어떤 일이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아무래도 자라서 부모를 더 사랑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그것을 선생의 논리에 대입하면,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면 아이도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리라는 기대이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 뭔가 쌓인다. 우리 문화에서 그것을 정이라 부른다. 미운 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표현이 적절했다면 고운 정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 점이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다'라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일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부자유친은 친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으로 사용하였다. 오륜의 내용이 다 그런 식이다. 규범은 본래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긴다. 잘 지킨다면 굳이 규범을 두어 강요할 필요가 없다. 『노자』를 읽어 보면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규범이나 예법이 출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오늘날에서도 이런 당위적 규범을 강조해야 할까? 글쎄다.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으로 지키도록 한 조선 시대도 아닌데, 더구나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오늘날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바로 여기서 교육적 원리를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도록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는 까닭은 이렇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대개 자식을 거의 조건 없이 사랑한다. 어떤 의무감이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태도이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이랄까 효도는 이와 다르다. 부모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식과 부모 사이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진다. 일례로 과거 아버지들은 직장 일로 바빠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잠들었을 때 퇴근했다. 휴일에도 아이들과 놀아 줄 시간도 없이 일할 때도 많았다. 그들의 삶을 가정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셈이다. 그런데 자식이 정작 자라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소통한다. 아버지와는 서먹서먹하다. 정작 은퇴하여 집에 있을 때도 자녀와 대화가 거의 없다. 열심히 돈 벌어 양육하고 교육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집안에서 따돌림당한 것처럼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만다.

또 하나의 예는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매우 엄격했다. 야단치는 일은 기본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로 때리거나 벌을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 중요한 일을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하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서 했다.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아버지는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효도나 부자유친의 당위적 명령만으로 관계를 좋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친하지 않았다면 커서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는 점은 반증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면서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소통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데

서 생기는 문제다. 성인이 된 뒤에 갑자기 가까이하려고 하거나, 어쩌다 행하는 스킨십은 닭살 돋는 일이 될 뿐이다. 이것을 잘 알았는지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과 잘도 놀아준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다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그 정성과 사랑이란 힘들게 뒷바라지해주고 키워주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물리적·신체적으로 가까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식의 부모 사랑을 옛날의 공경이란 가치로 바꾸어 보아도 별문제가 없겠다. 그 공경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 훗날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는 있다.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정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방식은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는 자주 바뀌어 세대마다 제각각이라고 아우성을 지르지 않는가? 젊은이들의 그것만 봐도 X세대에서 오늘날에 MZ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 않은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공경은 결국 자녀와의 소통 방식의 문제이다. 부모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있고 자녀가 선호하는 그것이 있다. 조선 시대의 그것은 기존의 관습이나 이념을 따랐다면, 현대는 리더가 양보하여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따라야 그들을 이끌어 의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그러하다. 이때의 성과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겠지만.

올바른 자식 사랑

요즘 다 자란 자식의 행태를 두고 당황하는 부모들이 더러 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사소한 것이라면, 어떤 부모는 자녀가 혼인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사람이 못마땅하여 자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전혀 기대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여 잘못 키웠다고 한탄한다.

이처럼 다 자란 자식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불만, 자녀의 무능력, 부모 모시는 문제와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 요양원에 방치된 부모, 게다가 존속 상해와 살인 등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하는 일이다. 그 외 온갖 범죄와 악행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이 일의 배후에는 경제적·사회적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교육 여건의 미흡이라는 요인도 있겠지만, 부모의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결과나 나왔는지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물론 모든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장담하지 않는 일이 하나의 상식이다.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키우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선생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방법이 없다."라고 한 말도, 학문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르치다가 얼른 깨닫지 못하고 더듬거리면 화부터 먼저 내는 일이 보통 부모의 생리다. 그러다 보면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심리적 거리만 더 멀어진다. 필자가 신혼 때 어느 집에 세 들어 살았는데, 그 집 여주인이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치다가 잘 모른다고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때리며 야단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직접 가르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점을 잘 알았던지 그 오랜 옛날에도 부모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는 말이 『맹자』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사자성어로 역자교지易子敎之이다. 지금도 교사들 가운데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자기 자녀가 재학 중이면,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학년도 바꾼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점도 있지만,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선생도 『성학집요』에서 그 가르침은 이어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자식을 낳으면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고르되,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삼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적게 하는 이를 골라서 그를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

친척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골라 어린 자녀의 가정교사로 삼는다는 말이다. 근대식 보편 교육이 없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런 교사를 통해 한 교육은 인성교육을 비롯한 글공부나 기능 위주의 그것이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에 손을 놓고 방치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 순서는 『소학』에 등장하며, 선생도 그걸 추천하지만,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다.

부모의 자녀 교육은 대체로 문자나 기능보다 인성교육에 치중된다. 그 내용 또한 『소학』에 들어 있다. 오륜과 자기 몸을 공경하는 일과 태도와 예의범절 등이다. 이런 내용을 통틀어 법도라고 한다. 선생도 "집안사람들이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원래 『주역』에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법도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의 규범과 관련된다.

오늘날은 민주사회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그게 다 먹힌다고 할 수 없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 진정성 있게 실천한다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 하며 자연히 그런 습관이 몸에 젖어 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도'를 자기 가정의 규칙으로 적용해도 좋다. 부모가 어떤 기준이 없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확실한 규범인 어떤 '법도'를 정하여 공동으로 지키면 효과를 볼 것이다. 부모가 지킬 일 가령 금연, 과음하지 않기, 정시 퇴근, 일정한 시간에 놀아주기 등과 아이가 지킬 일 가령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자기, 자기 방 청소하기, 동생과 싸우지 않기 등으로 나누어 정해 지키는 일이 그것이다. 또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정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법도 또는 규범은 합의로 약속하여 정하며, 그렇게 한 이상

모두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일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연히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혹자는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자식 교육은 그만큼 세밀하고 힘든 일이라는 점을 말해 본 것이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참교육을 위해 가혹하리만큼 냉정할 때도 필요하다. 부모라는 인정에 이끌려 일을 망치는 일도 적지 않다. 엄격한 규정을 정해두고 실천하는데 자식이 불쌍하다고 여겨 기준을 완화하거나 벌칙은 면제해주면 효과는 금방 무너진다. 학교나 군대 등의 조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물론 바위 아래 새끼를 집어 던져 시험하는 호랑이의 사례를 금과옥조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어있다. 선생이 인용하는 『대학』에 이런 말이 있다.

> "사람이란 자기가 사랑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미워하여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슬퍼하거나 가엾게 여겨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누구에게 오만하게 굴거나 게을러도 치우치게 된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흔하지 않다."

자기가 치우치게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

는 일이 참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 거기서 또 이렇게 말한다.

> "속담에 '사람이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못나도 자기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바로 여기에 교육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 망친 사람이 부지기수다.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싸울 때, 공부 결과인 성적에 대해서, 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할 때, 자녀의 말버릇에 대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 줄 때, 자녀를 태우고 운전할 때, 같이 놀아 줄 때도 어떤 행동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일인지 늘 잊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일이 올바른 사랑인지 말할 지면이 부족하다. 아동 발달에 따른 대응책이 다양하고, 아이가 자란 환경과 심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정상적인 아이라도 그렇다. 사람들이 반려견의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겠는가? 빗나간 자녀의 행동 뒤에는 졸렬한 양육 방식도 큰 몫을 차지한다.